# 폭넓은 사회인식의 문학세계

## 문화시리즈 — 소설 · 평론(上)

## 학교·매체 지원 바탕으로 기라성같은 문인 배출해
## 뛰어난 창작력으로 분단·사회문제 등 형상화시켜

### 경희가 낳은 예술인

앞서 두차례에 걸쳐 연재된 경희시문학 분야의 성과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경희 출신 문인들이 각기의 작품을 통해 우리 현대문학사에 남겨놓은 족적은 실로 만만치 않다. 소설과 평론 부문에 관한 개괄적인 면모를 더듬어 보기에 앞서 다시금 그 단단하고 풍성한 광맥의 근원을 되짚어 보는 일이 요구되는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적된 문학적 노적가리의 규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고 힘있는 내일의 전망을 향해 나아갈 기력을 섭생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 문단에서 학부와 대학원 출신을 모두 포함하여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역문인은 1백20여명. 역사 40여년의 대학에서 이처럼 많은 인원이, 그리고 당대 문단에서 수준급의 문필로 평가받고 있는 적지않은 시인·작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범상한 일일 수 없다. 다시 말해 거기에는 그럴만한 원인행위가 개재해 있다는 뜻이다.

학교당국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문학이라는 텃밭을 개간하기 위해 공을 들여 씨를 뿌리고 이를 가꾸었다. '고교생 백일장'과 '고교생 문예현상'의 당선자들에게 무시험 입학의 특전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온 문예장학생 제도나 신문방송국에서 주관하는 [illegible] 제도 등을 우선 손꼽을 수 있다. 아울러 문단의 중진급 문인들이 국어국문학과의 강단에 포진하여, 주요섭·김광섭·양주동·황순원·조병화·서정범교수 같은 분들이 글을 쓰는 기능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인간성의 탐구와 원숙을 주안점으로 한 깊이있는 문학의 가르침을 다져왔다.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 산출되기 시작한 문인 자신들도 1979년 경희문인회를 결성하는가 하면 11집에까지 이른 '경희문학'을 발간하고 '경희문학상'을 제정하여 스스로 응집력을 키웠다. 이와같은 형태의 노력이 문단 분파주의나 학연 이기주의로 흐르지 아니하고 개개인의 독자적 역량이 전체적인 외양을 알차고 다채롭게 치장하는 형식을 갖춘 것은 매우 기꺼운 일이었다.

이들은 문학이 문학 자체의 예술성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는 창작방식을 고수하고 전통적 서정성이나 서사구조를 허물지 않는 중견 문인으로부터 1980년대 이후의 역사철학적 상황에 대응하여 문학의 현장성을 중시하고 운동으로서의 문학을 내세우는 신진 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는 지면의 분량에 맞추어서 이들 중 1970년 초반이전에 캠퍼스에 몸담았던 문인과 그 이후에 대학생활을 한 문인으로 양분하여 두차례에 걸쳐 시대적 배경 및 개별적인 작품세계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소설가와 평론가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되,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덜한 평론에 관해서는 글의 말미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자니 한 작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나 작품의 분석과 같은 비평적 고찰을 유보할 수밖에 없고, 대체적인 창작성향 및 작가와 관련된 주변문제 등에 관해 일차적인 정보를 조합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1970년대 초반 이전에 수학한 동문문인 가운데 소설가로 명호를 내 건 이는 10여명에 이르며, 이 경우는 1949년에 시작된 경희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반기 20여년에 걸친 문학적 수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분포는 아니지만, 이들의 면면은 질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더 빛을 내고 있다. 졸업을 전후하여 신춘문예나 현상모집을 통하여 문단에 나오고 1970년대에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은 당대의 중심과제였던 분단소설이나 산업화시대의 여러 문제에 접근하는 소설들을 주로 제작했다.

김용성(영문과·12회)은 재학중인 1961년 한국일보 장편공모에 '잃은 자와 찾은 자'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30여년의 작품창작 기간에 '내일 또 내일' '나신의 제단' '밀항' '도둑일기' '큰 새는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다' 등의 작품을 통해 간결하고 평이한 문체, 정확하고 객관적인 서술의 행보를 지켜왔다. 그러면서 타락하는 사회 속에서 타락해서는 안될 정신적 순수성을 소설로 발화하는데 진력했다. '도둑일기'가 현대문학상을 '큰 새는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다'가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이 오래고 끈질긴 사회사적 관심이 일정한 가치를 확립한 결과이다.

또한 전자는 우리 문학사에 그 전통이 드문 성장소설의 지평을 새롭게 개척, 지금 '동서문학'이라는 잡지에 그 후속편이 연재되고 있으며 후자는 치열한 사회의식이 보다 직접적으로 소설의 표면에 돌출하여 메시지와 형식성을 원활하게 조화시킨 역작으로 읽히고 있다. 후자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1980년대 중반 이래 폭죽처럼 터져나온 수많은 현장소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담는 그릇'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여, 동시대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학생운동이나 노학연계투쟁을 사실적인 공감의 바탕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전상국(국문과·12회)은 196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행'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깊은 회의로 창작의 의욕을 잃고 귀향하여 10년 세월을 교편을 잡으면서 지냈다. 그 자신이 '준엄한 수업기간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내성적 성찰의 시기는 추후 그의 세계를 활기차게 가동하는 동력원이 되었다. 1972년 상경과 더불어 대단한 작품의 분량과 수준으로 1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단시일 내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늘 아래 그 자리' '아베의 가족' '우리들의 날개' '우상의 눈물' '불타는 산' '길' 같은 작품들이 속도감 있고 유려한 문장으로 생산되었고 그리하여 한국문학 작가상, 대한민국 문학상, 동인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 이름있는 문학상의 수상자로 그를 밀어 올렸다.

그의 작품들은 크게 두가닥의 경향으로 대변된다. 하나는 6.25 동란이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한 세대가 경과하면서 이 처참한 갈등과 살육의 현장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데올로기의 위력을 걷어내고 인간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회복하는 일의 선두에 서 있었으며, 그것은 문학이 상처받은 인간의 영혼을 효력있게 위무할 수 있다는 저 고색창연한 명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재직하던 고등학교 교실을 무대로 하여 사회악의 축약된 모습을 제유법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교활한 악의 유형을 들추어 보임으로써 우리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작업이었다. 근래에 그가 발표하는 소설들은 이 두 경향의 요체를 한 작품 안에 수용하면서 이를 우리 시대의 현실적·상황과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가 하면 조세희(국문과·14회)가 있다.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돛대없는 장선'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조세희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난장이 마을의 유리병정'등 일련의 난장이 연작 소설로 같은 시기 다른 작품들을 압도하면서, 견고한 문학성과 명론한 사회의식이 조화롭게 악수하는 소득을 거두었다. 비록 과작이기는 하나 그의 소설들은 발표될 때마다 문단 내외의 주목을 모았고, 1970년대에 막이 오른 산업화 시대의 와중에서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처연한 삶을 우리 문학의 중심부를 끌어들였다. 그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동인문학상이 주어지는 일조차 용이하지 않았던 폭압적 시대상을 헤치고, 조세희는 안락한 일상 속에 함몰되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보신주의를 아프게 두드렸다.

산업사회의 병리와 허위를 폭로하는 문면에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와 자유로운 삶에의 열망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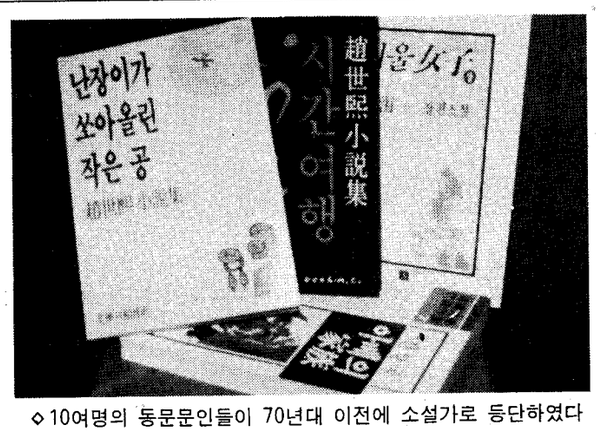
또 조해일(국문과·14회)이 있다.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매일 죽는 사람'으로 문단에 나온 후 '아메리카' '왕십리' '겨울여자' '우요일' '지붕위의 남자' '갈 수 없는 나라' 'X' 등의 소설집과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세미한 심리적 동향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들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에 유연하게 복속되도록 구성하는 소설적 얼개가 그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꺽정'을 주제로 한 연작들에서는 이러한 강점들을 역사적 자료와 아울러서 산뜻한 형상으로 포장해 내는 기량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장편 '겨울여자'는 한때 낙양의 지가를 올린 대중적 확산을 가져오면서, 조해일의 이름 아래 넓은 받침돌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한수산(영문과·21회)은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사월의 끝'으로 등단했는데, '해빙기의 아침' '부초' 등의 장편소설을 필두로 하여 그 제목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분량의 작품과 베스트 셀러를 내놓은 작가로 성장해 갔다. 다만 그러한 양적 확산이 전반적으로 문학성의 희석을 초래한 부분은 그의 역량에 비추어 아쉬운 뒷맛을 남기는 편이다.

그 외에도 가상의 역사에 의지하여 환상적인 민족미래소설 '다물'을 쓴 김태영(영문과·14회)을 비롯하여 노수민(국문과·20회), 박진숙(국문과·22회), 권혁민(국문과·24회), 우선덕(국문과·24회) 등 보다 젊은 층의 작가들이 소설창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견시인의 반열에 올라선 이후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위령제'가 당선되어 소설가의 신분을 추가한 정호승이 새 승부를 준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한정된 지면 사정으로 인하여 세세히 언급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 종 회
〈문학평론가 · 문리대 강사〉



◇10여명의 동문문인들이 70년대 이전에 소설가로 등단하였다

## 문화단신

### 시집 '희망이 있는…'

지난해 5월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열사중의 한사람인 박승희양이의 죽음을 부활의 시로 승화시킨 최우희씨의 시집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다워라'가 도서출판 '힘'에서 간행되었다.

'제1회 임수경 통일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고 시집 '쑥고개 편지'를 발표했던 최은희씨는 '희망이 있는 …'에서 풍부한 서정을 바탕으로 당시의 분노를 형상화하며 남아있는 자들의 의무를 이야기한다.

### '죽음과 소녀' 상연

극단 '미추'는 아리엘 도르프만 원작의 '죽음과 소녀'를 손진책 연출로 오는 4월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상연한다.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심한 성고문을 당했던 여주인공 빠울리나의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 정신적 고통과 분노, 복수심을 그리고 있는 이 연극은 극전편에 슈베르트의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가 흐르게 된다.

〈문의:743-7828〉

### '경희극장' 부원모집

본교 연극동아리 '경희극장'은 제38기 신입부원을 모집한다.

배우, 연출, 조명 등 8개부문에 걸쳐 모집하는 이번 '경희극장'의 신입부원모집은 본교의 전 학년(호전·간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는 학생회관 7층에 위치한 '경희극장' 동아리방에서 교부하며, 1차면접은 오는 27일 실시된다.

## 시 어린날의 삽화 3

빛쟁이들이 돌아가면
아버지 태우시는 줄담배 연기에
눈이 아파왔다 신발목 머니를
땅에 끌고 다니던 국민학교 4학년,
배달소년을 모집하던 보급소에서
너무 작은 키로 인하여 그냥 돌아온 날 밤
철야기도 나가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소망했다, 어서 커야지
형이 입다 물려준 줄여도 헐렁한 교복을 입고
중학에 갔을 때에도 나는 소망했다
키가 커야지 어서 옷맵시는 커야지
매일 아침 금을 그어논 기둥에 서보았다
하루빨리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신문 200장 접도는 가뿐하게 들고
골목골목을 나는 듯이 뛰어다니고 싶었다
어린 꿈의 소매가 젖어가도
가슴에 그어진 금은 물결치지 못하고
어머니 한숨만 섞음은 수제비처럼 둥둥 떠다니던
산동네, 늘어만가는 붉은 삽자가 불빛이
금긋기처럼 아른거리다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배 정 원 〈국문·3〉

## 꽁트 이만원

경호는 해종일 싱글벙글이다. 어제 저녁 소개팅에서 만난 민숙이가 마음에 쏙 든 것이다.

김민숙. S여대 가정관리학과 2학년. 동글동글한 얼굴에 두 귀를 살짝 덮은 단발머리, 초록색 등걸이에 청바지를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 첫눈에 호감이 갔다. 수수한 차림새를 여대생이 가져야 할 으뜸 덕목으로 삼는 경호에게 민숙의 첫 인상은 그만이었다.

경호는 여대생들의 요란스런 옷차림은 딱 질색이다. 본디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화장을 한다든지, 주먹만한 영문자를 휘갈린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학생은 머리에 든 것 없는 여자로 치부해두던 터였다.

가정관리학이라는 전공도 마음에 들었다. 자신은 경영학 전공이니 바깥에 나가서 돈 잘 벌고 사람행세하기 좋고 여자는 알뜰살뜰 집안살림 꾸리기에 좋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 전공끼리 만난 경운가. 나이도 71년생 동갑내기여서 격의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이였다. 까투리 앉아 있는 곳에 장끼 날아들었다고나 할까.

한가지 흠이 있다면 민숙이가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다. 때가 때인 만큼 71년생으로는 처음 참가하는 총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민자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외우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3당통합에서부터 부정선거행위까지 하나 막힘없이 줄줄 쏟아놓는 거였다. 민숙이가 혹시 운동권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다. 딴은 그렇다. 민자당 나쁘다는 걸 모르는 대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민숙이는 다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비판하는 능력을 가졌을 뿐이지. 앞으로 잘 사귀다보면 민숙이도 남자에 닳아서 점차 온건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경호는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민숙이를 소개해준 과동기 윤수에게 술 한 잔 사야겠다고 작정했다.

"경호학생 전화받아요"

하숙집 아줌마의 선잠든 목소리였다. 혹시 민숙이가 아닐까. 그럴리가 없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적극적이지 그 외엔 내가 질문을 던져야 겨우 입을 여는 아인데. 혹시 모르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경호는 가슴 설레며 수화기를 들었다.

"경호냐, 내다"

젠장, 김새는 목소리다. 고등학교 선배인 창민 형의 목소리다.

"형이 웬 일입니까. 전화를 다 하고"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는 법이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간 좀 낼 수 있겠냐. 긴히 할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러죠.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학교 정문 바로 앞 돈키호테 알지. 거기로 와"

경호는 죽을 상이다. 하필 대학생들이 몰려온 연설회장에 오다니. 창민 선배가 야속했다. 그날 저녁 경호는 민자당 선거운동 제의를 받은 것이다.

"너 선거운동 할 생각 없냐. 길어봤자 두세시간만 운동장에 앉아서 박수 몇 번 짝짝 쳐주고 일당 이만원이야. 괜찮지. 일단 내일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해도 좋아. 그러면 일당도 늘어. 삼에서 오까지. 다른 아르바이트 뼈빠지게 해봐라. 이만한 돈 만질 수 있나. 너도 집에서 올라오는 돈 가지고는 빠듯하잖아. 며칠만 두 눈 딱 감고 뛰면 한 학기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어때 한번 해보지."

서너 시간 투자에 이만원이면 어디 짭짤하다 뿐인가. 하지만 민자당이란 게 탈이다. 대학생이 민자당 선거운동을 하다니. 아무래도 깨림칙하다. 경호는 돈과 명분 사이에서 꽤나 고심했다. 줄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지겨운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겨우 매듭을 지었다. 몸으로 민자당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민자당을 좋아한다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잖느냐.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겠느냐. 마음으로만 민자당을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냐. 거기다가 고향 선배가 오랜만에 부탁한 건데. 두눈 딱 감고 박수 몇 번 쳐주자. 궁하던 차에 일당 이만원이라니, 웬떡이냐.

약속장소인 국민학교 운동장에 와보니 사정이 달랐다. 대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있는 것이다. 첫번째 연사인 민자당후보가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우우 야유를 퍼붓고 뒤로 앉아 귀박고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당황한 민자당 후보는 숫제 악악 고함을 질러댔지만 역부족이었다. 두번이나 연설이 중단되었다. 박수 부대로 동원된 사람들 역시 난감해 하는 눈치였다. 어림짐작으로 이천명은 넘어 보이는 대학호 바로 옆자리에서 박수 부대 지휘자와 한 남학생이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누구 돈 받아 쳐묵고 이런 빨갱이 짓이야"

"말이면 다 말인줄 아세요. 민자당이 제 할 일 잘해봐요. 우리가 이러나"

"건데 이 자식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엇다 대고 꼬박꼬박 반말 짓거리야!"

지휘자는 목에 핏대를 세웠다. 경호는 똥줄이 탔다. 하필 제 옆자리에서 싸움판이 벌어지다니. 속에 천불 나는 노릇이었다. 앞뒤 좌우로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차 당장 자리를 피하기도 힘들었다. 누가 불새라 고개를 쪽 숙였다.

"아저씨, 아무리 나이 어린 학생이라도 그렇게 막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어디 못할 짓이라도 하는 겁니까. 민자당이 불법행위 저지른 걸 생각하면 우리야 학생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 하는거죠."

웬 당찬 여학생이 한 몫 거드는 모양이였다. 경호가 들어도 똑똑소리나는 말솜씨였다. 지휘자는 할 말을 잃고 얼굴만 붉그락푸르락하였다. 그런데 여학생의 목소리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듯 했다. 경호는 누군가 해서 고개를 돌렸다. 순간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민숙이…. 민숙의 두눈에 도끼날이 반짝 섰다.

"세상에 …, 이경호 너…, 끝이야 끝!"

민숙의 격양된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호에게로 쏠렸다. 경호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젠장, 겨우 돈 이만원때문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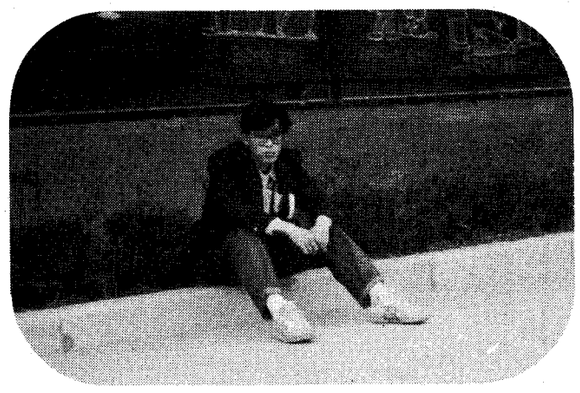
경호는 툴툴거리며 슬그머니 연설회장을 빠져나왔다.

김 도 형
〈국문 · 3〉

**서너시간 투자에 이만원이면 어디 짭짤하다 뿐인가, 두눈 딱 감고 박수 몇번 쳐주자**

## 캠퍼스 문화인

## '사람'과 함께 하는 영화
### '빛사냥' 회장 이종은군을 만나



문예사업에서 '창작'이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종은(사회대 행정·90)군.

그는 민족의 정서에 부합하고 건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영화문화를 지향하는 문예인으로서 88년 설립된 창작영화제작 동아리 '빛사냥'의 회장을 맡고 있다.

'빛사냥'은 설립당시 8mm 소형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했으나 기술·재정등의 이유로 소형영화보다는 비디오제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이다. 연극영화과가 없는 교내 상황에서 '빛사냥'은 영화제작동아리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이군은 특별히 영화에 대해서 당위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않는다. 단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매개체로 대중과 접한다는 점에서 창작활동의 '책임성'만을 이야기 할 뿐이다.

"책임성이라는 것은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대중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군요"라며 이군은 씁쓸히 웃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빛사냥에 가입하기 전 이군이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주윤발의 '가을날의 동화'라는 점이다. 진부한 소재로 참신한 내용을 담아냄으로 인해 이군은 이 영화에서 영화의 힘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의 진면목을 조금이나마 알게된 지금 그는 영화 '파업전야'에서 또다른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상영방법도 다르고, 구호·노래를 관객과 함께 한 이 영화가 기법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지 모르나 이군에게는 전망을 비춰준 영화였기 때문이다. 작년 빛사냥 선배가 제작한 개인창작물 '천세용 열사 추모 비디오' 또한 이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대중영화를 제작하면서 창작활동의 책임성 느껴"**

이 영화들은 자본의 논리에 갇힌 현 영화문화를 벗어나서 '어떻게 영화가 대중들에게 진실한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영화라고 한다.

동아리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며 이군은 부모님께 항상 죄송스런 마음을 갖게 된다며 '학과 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군은 대학생활 중 작년 범민족대회 동안 친구가 구속되었을 때 힘이 되어 주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항상 새로운 희망과 활력소를 찾는 이군은 밤샘을 하면서 편집을 끝내고 동료들과 함께 새벽별을 바라볼때 '함께 사는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화면에 고착된 영화가 아닌 생동하는 삶으로서의 영화를 그리고 싶다고.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영화속에 투영하고자 노력하는 이군의 계속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

〈이수정記者〉